심사평

심사위원 **김현섭**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국내 건설업의 초기 역사를 밝히려는 이 연구는 건축역사의 범위를 확장해 포괄적으로 보려는 근래의 연구 상황을 반영하며, 그 점에서 무척 의미가 크다고 생각된다. 또한 철도공사가 시작된 1890년대부터 건설업법이 도입된 1950년대까지, 해당 주제와 관련된 가능한 모든 자료와 사료를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보여주려 시도한 점도 뜻깊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한국의 근대 건설사 및 건축사 연구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다양하게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국 근대 건설업은 1890년대에 시작됐다"는 논점도 무척 도전적이고 고무적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자의 소견에 이 연구에는 몇 가지 중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첫째는 주체의 문제다. 한국 건설업의 주체를 여전히 '한국인(조선인)'에서 찾아야 하지 않느냐는 말이다. (본고에서 중요하게 내세우는 '주체'는 '국가'나 '건축가'에 대비되는 '건설업자'로서 매우 다른 입장이다.) 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논쟁적인 이슈이고, 그러한 주체보다 저자의 의도처럼 한국 내의 상황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 더 포괄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더 치열한 논리가 요구되는 것 같다. 예컨대 저자가 표현한 '한국 건설업'은 '한국의 건설업'인지 '한국에서의 건설업'인지 좀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심사자가 보기에 (전자를 포함한) 후자를 뜻하는 것 같고, 이로써 "반식민적 사관을 극복"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따르지 않았다. '한국의 건설업'인지 '한국에서의 건설업'인지의 문제는 제목에서도 나타나는데(영문 제목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Modern Construction Industry in Korea"는 훨씬 명확하지만), "근대 건설업의 기원과 전개"는 보편적 상황의 표현이어서 앞에 한정사로 '한국' 혹은 '한국 내' 등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앞의 연장선상의 견해이기도 한데, **한국인의 활동이 더 집중적으로 조명됐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 서론에서 일제하에 활동을 시작해 해방 후의 건설업을 이끌었던 여러 인사들을 언급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집중적 조명을 암시했고, 결론에서도 이들의 역할을 밝혔다고 적으나 사실 본문은 여기에 지면을 그다지 크게 할애하지 않는다. 자료 부족의 이유도 있겠지만 연구의 초점이 분산된 탓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심사자의 소견에는 1900년 전후 국내의 주체적 노력을 배경으로 하여 (1899년 대한철도회사 성립, 1900년 궁내부 철도원 성립 및 서북철도원 증치, 1901년 국내 청부업체 등장 등), 1920년대 국내 청부업자의 등장에 초점을 맞췄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 1920년대는, 저자에 따르면, "관 발주 '청부'공사"를 넘어 "청부업자가 '건설업'을 구축"한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그리고 여러 부침 이후 1940년대 초 부림상회[대림산업]가 목재업체로 대두하기도 했고 영단주택에 조선인 업체가 참여하게 된 일 등도 핵심 줄거리일 것이다. 본고가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다 가장 중요한 것을 더 도드라지게 만들지 못한 것은 아닐까.

셋째, 결국 같은 맥락에서, **이 연구가 방대한 자료를 정리해 보여준 것은 유용하지만 논점에 대한 좀 더 정교한 논리와 해석이 뒤따랐다면 좋았을 것이다.** 2~6장은 시기별 서술인데, 7장 결론은 대부분이 각 장의 소결을 반복한 수준에서 그친다. 그리고 각 장에서도 모순된 내용이나 내부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한 내용, 혹은 같은 내용의 반복도 종종 보인다. '청부업'과 '건설업'의 규정 및 '전근대적 방식'과의 차이, 행정과 공사 체계의 발전과 관계된 '근대(성)'의 의미, 그리고 저자가 강조한 '연속'과 '단절'에 대한 내용 역시 더 명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서론에서 "반 식민-민족주의 사관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에 대한 비판이 있었으니, 결론에서도 수미상관하게 이를 논했다면 더 설득력을 얻었을 것이다. 중요한 자료와 사료의 발굴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하지만 자료가 해석을 압도하도록 하는 대신, 해석이 적절히 자료를 제어하도록 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박사학위 논문과 출판기획서(가 말하는 '출판원고') 사이에, **제목뿐만 아니라 기본 논점에서도 다소간의 차이가 읽힌다.** 박사학위 논문이 후속 연구의 결과로 보완될 예정이라 말하는데, 어떻게 보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밝혔다면 훨씬 설득력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서두에서 언급한 의미로 인해 앞으로의 잠재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이번에 당선작에 들지 못했으나 여러 심사의견을 적절히 반영하고 녹여낸다면 더 나은 결과물로 재도전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동학(同学)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심원건축학술상 응모작을 심사함에 있어 심사자 개인적으로는, 이 글에서 자명할 뿐만 아니라 전회차 심사의견에 이미 피력했듯, 튼튼한 실증적 고찰에 더해 정교한 논리와 해석이 수반된 연구를 기대한다. 그것이 "건축역사·이론·미학·비평 등 건축인문학 분야의 신진연구자 발굴"이라는 심원건축학술상의 원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